

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기후변화정상회의(COP26)

세계 지도자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?



다음 달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COP26 회의가 열립니다.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, 홍수 등 인류의 미래에 커진 적색 경보가 심각해지자 각국 권력자들도 여기에 대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. 그러나 권력자들이 기후 위기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? 권력자들의 기후 위기 대응의 모순과 문제점을 살펴보고, 기후 위기를 해결할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 토론합니다.

일시 10월 9일(토) 오후 4시

발제 정선영 <노동자연대> 신문 기자

참가대상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, 청년

참가신청 bit.ly/stuforum1009 (모임 당일 줌 접속 링크 문자 발송)

주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**문의** 010-5443-2395 student@workerssolidarity.org (인스타&페이스북 DM도 가능)

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기후변화정상회의(COP26)

세계 지도자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?



다음 달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COP26 회의가 열립니다.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, 홍수 등 인류의 미래에 커진 적색 경보가 심각해지자 각국 권력자들도 여기에 대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. 그러나 권력자들이 기후 위기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? 권력자들의 기후 위기 대응의 모순과 문제점을 살펴보고, 기후 위기를 해결할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 토론합니다.

일시 10월 9일(토) 오후 4시

발제 정선영 <노동자연대> 신문 기자

참가대상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, 청년

참가신청 bit.ly/stuforum1009 (모임 당일 줌 접속 링크 문자 발송)

주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**문의** 010-5443-2395 student@workerssolidarity.org (인스타&페이스북 DM도 가능)